

『주역참동계』에 나타난 의학사상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임명진·김병수·강정수*

Study on Medical Thought of 『Zhouyi Cantongxie(周易參同契)』

Im Myung-jin·Kim Byung-soo·Kang Jung-soo*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According to 『Dongeuibogam(東醫寶鑑)』, 『the Shinnong Herb Bible(神農本草經)』, 『Chamdonggo(參同攷)』, come to the conclusion about medical thought of 『the Zhouyi Cantongxie(周易參同契)』.

Alchemy is a common field both on the eastern and western civilization, but a process of development is different. Ancient chinese alchemist made a study on external alchemy, but harmful consequences of external alchemy was consecutive, many scholars had turned their interest on internal alchemy which is related in human meridian biology and spirit. In the western alchemy has developed to make a study on analytic psychology and science of religion. Most importantly, the eastern and western alchemy have something in common what at the point of the perfection of self is similar, but the name is different, for example in the eastern alchemy we can be immortals and take a spiritual enlightenment with the elixir of life, in the western we can take a cure of souls as a christian.

As for internal alchemy, 『Cantongxie(參同契)』 gives influence to the theories such as the theory of danjeon(lower part of the abdomen), evolution, aging, and life nurturing. Especially, the theory of danjeon shows such merit for studying since it is similar to triple energizers(三焦) and the theory of qi street(氣街) of oriental medicine.

The study on 『Cantongxie(參同契)』 was achieved in Korea too, especially Chosun dynasty. 『Candongkao(參同攷)』 by Seo Myung-eung(徐命膺, 1716~1787) are representative. According to 『Candongkao(參同攷)』, Geon(乾), Gon(坤), Gam(坎), and Ri(離), the four trigrams for divination, each are affiliated with lungs, spleen, kidneys, and heart.

Nowadays the study on alchemy correspond with modern trends, which are anti-aging and living without any disease. If processed mineral drugs is assured for stability, it can be used for incurable diseases such as cancer.

Key words : alchemy, elixir, Zhouyi Cantongxie(周易參同契), Dongeuibogam(東醫寶鑑), Chamdongkao(參同攷).

* 교신저자 : 강정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E-mail : omdkjs@dju.kr Tel : 042-280-2617.

접수일(2011년 8월 31일), 수정일(2011년 9월 24일),
게재확정일(2011년 9월 23일)

I. 서론

『주역참동계(이하 ‘참동계’라 함)』는 동한 환제(146-167)때의 인물인 魏伯陽의 저술로 알려져 있으며¹⁾, 역학, 황노사상, 연금술, 내단수련, 의학, 천문학적인 주제가 종합된 책이다. 『참동계』의 핵심 키워드는 大易, 黃老, 爐火사상이다. 그중에서도 『참동계』가 드러내고자 하는 실질적 주제는 연금술이라고도 알려진 外丹과 내면의 에너지를 수련하는 內丹 양생이다. 인체 외부의 물질에서 단을 얻는 것이 외단이라면 인체 내부의 정기신을 재료로 수련하는 것이 내단인데, 이를 모두를 포괄하여 爐火사상이라 한다.

현대 화학적 관점에서 연금술은 일종의 사이비 과학으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참동계』의 주제가 되기도 하는 연금술의 생명력은 실로 놀랍다. 서양에서는 금이나 장생불사약을 만들려는 물질적 접근을 넘어 종교사적, 심리학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자들은 물질의 변용과 함께 정신의 변용을 이뤄내려는 것이 연금술의 본래 취지라고 주장한다. 반면 동양에서는 외단의약학이 한의학의 틀 속에서 발전해 왔고, 내단수련을 통한 양생이론과 깨달음의 생리학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갈홍의 『포박자』로 대표되는 외단과와 장백단의 『오진편』으로 대표되는 내단과, 모두 『참동계』를 연구한 것은 『참동계』가 내외단의 이론적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백단을 위시한 내단과에서 『참동계』를 “萬古丹經王”이라고 추앙한 후로 『참동계』는 단경의 최고 경전이 되었으며 이러한 모든 연구의 중심에 『참동계』가 자리잡고 있다.

『동의보감』처럼 『참동계』 이론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의서도 있지만 역학부분에서는 張景岳²⁾, 李梴³⁾, 唐宗海⁴⁾ 등으로 대표되는 醫易學이론이 대표적이다. 의역학은 주역의 음양, 오행, 팔괘, 간지이론 등을 이용하여 의학의 생리와 병리를 해석하는 학문분야

로서, 난해하다고 여기지는 운기학도 유래가 같은 분야다. 黃老사상은 『황제내경』의 주된 사상으로 한의학의 양생법이 無爲自然과 天人相應으로 대표되도록 하였고⁵⁾, 爐火사상은 외단적으로는 『신농본초경』, 『본초강목』과 같은 본초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본초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丹砂와 雲母, 石硫黃 등을 이용한 단약들이 방제에 이용되면서 한의학의 범위를 넓히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의보감』에 인용된 『참동계』⁶⁾ 인용문과 광석지제가 들어가 있는 처방을 중심으로 양생과 연단술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참동고』의 장부론에 대해서도 소개함으로써 『참동계』의 의학 사상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II. 본론 및 고찰

1. 한의학과 도가사상

한의학 뿌리를 설명하는 기록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황제내경』의 「異法方宜論」⁷⁾이다. 여기서 지역에 따라 다른 치료법이 있다는 관점에서 서술되었는데 동쪽에서는 펄석이 발달하여 癰瘍을 사혈법으로 치료하고, 서쪽에서는 독약으로 속병을 치료하며, 북쪽은 뜸[灸熯]으로 냉병을 치료하고, 남쪽은 아홉가지 침으로 치료하며, 마지막으로 중앙은 導引按蹠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치료법을 중심으로 하는 분류와는 달리 내용이 각각 다른 저작물들을 통해 한의학의 역사와 분과를 설명할 수도 있다. 한의학을 대표하는 서적으로는 우선 『황제내경』, 『신농본초경』, 『난경』, 『상한론』을 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 한의학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내경』은 의약의 원리와 침구의 구체적인 내용이 황노학과 도가적 관점에서 서술되었다. 반면에 『신농본초경』은 전형적인 도가적 관점의 본초서적으로 외단술의 대표적인 약물인 丹砂가

1) 이도경. 『주역참동계』에 나타난 역학사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3.

2) 장계빈. 유경도의학. 서울. 대성문화사. 1982.

3) 이천. 정교의학입문. 서울. 한성사. 1984.

4) 당종해 원저, 김달호, 안규석 공역. 의역통설. 서울. 의성당. 2002.pp.1-3.

5) 이러한 양생법은 『황제내경』의 「상고천진론」, 「사기조신대론」 등에 잘 드러나 있다.

6) 후측 팽효의 『周易參同契分章通眞義』를 저본으로 하였다.

7)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44.

첫머리에 등장하고⁸⁾, 많은 약물의 성질이 불로장수와延年익수에 초점을 맞춰 분석되었다. 고대 한의학을 대표하고, 수많은 의가들이 醫經으로 만들었던 두 서적이 전형적인 도가사상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한의학의 뿌리가 仙道에서 유래되었다는 『醫學輯要』의 주장⁹⁾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물론 이러한 관점이 항상 환영받아온 것은 아니다. 조선 후기 東武 李濟馬에 의해 저술된 『동의수세보원』이나 18세기 일본의 대표적인 고방과인 요시마쓰 토도(吉益東洞)가 저술한 『醫事或問』 등을 보면 『상한론』의 처방과 원리는 믿고 따를 수 있지만, 『황제내경』을 위시로 한 도가성향의 의서는 참고만 할 뿐 의학의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¹⁰⁾.

하지만 황노사상과 도가학설은 한의학의 중요한 생리학설인 장부학설, 경락학설이 처음 비롯된 근원이고, 孫思邈, 陶弘景과 같이 의학과 내단수련을 함께 했던 이들이 실제 많았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한국을 대표하는 의학서적인 『동의보감』이 ‘身形, 精, 氣, 神’이라는 기본 구조에서부터 도가적인 관점에서 저술되었고, 仙佛一體를 표방한 南宗 내단파의 개념들이 『金丹正理大全』의 인용을 통해 전해졌다는 점이다¹¹⁾. 이는 성리학을 정통으로 보고 여타 학문을 이단으로 취급했던 조선조의 시대적 상황과 대조해 보았을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한의학이 갖는 도가적 근원과 도가의학의 예방의학적 가치가 만들어낸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2. 『동의보감』에서 『주역참동계』 인용

『동의보감』에 도가의학의 내용이 주된 위치를 차지하게 된 데에는 『동의보감』 편찬에 참여했던 鄭樞의 역할이 컸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鄭樞는 『龍虎訣』로 유명한 鄭北窓의 동생으로 조선 단학파의 중요한 구성원인 翁양 鄭氏 집안 출신이다¹²⁾. 실제 『동의보감』에 인용된 도가서적을 살펴보면 『주역참동계』를 비롯해서 『金丹問答』, 『金丹正理大全』, 『西山記』, 『仙經』, 『悟眞篇』, 『雲笈七籤』, 『肘後方』, 『眞誥』, 『清靜經』, 『翠虛篇』, 『洞神眞經』, 『抱朴子』, 『黃庭經』(이상 가나다순) 등이 있다.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외단을 추종했던 학자가 거의 없었는데, 『동의보감』 또한 송대 이후의 내단사상이 주로 표현되었다. 특히 「內景篇」의 「內景」은 『黃庭內景經』에서 차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황정경』은 위진년간에 성립된 것으로 인체는 하나의 완전한 神들의 세계이며, 인체의 각 기관은 이 신들이 머무르는 집으로 인식했던 수련서다¹³⁾.

『동의보감』에 인용된 『참동계』 내용을 보면 우선 「內景·卷一·身形」의 「形氣之始」 조문에 “『참동계주』에 ‘형기가 아직 갖추지 않은 것을 鴻濛이라 하고, 갖추었으되 아직 떨어지지 않은 것을 混淪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주역』에는 ‘역에는 태극이 있고, 이것은 양의를 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역은 鴻濛과 같고, 태극은 混淪과 같다. 건과 곤이라는 것은 태극의 변인데 그것이 합하면 태극이 되고, 나누어지면 건과 곤이 되기 때문에 건과 곤이 합한 것을 말하여 混淪이라 하고, 건과 곤이 나누어진 것을 말하여 先天이라 한다. 열자는 ‘태초는 氣의 비롯함이고, 태시는 形의 비롯함이다.’라 했는데 역시 이와 유사한 것이다.”¹⁴⁾라고

8) 오보 원저. 신농본초경. 서울. 의성당. 2003. p.27.

9) 송점식찬. 의학집요. 대전. 문경출판사. 1992. p.31.

10)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p.71-72. 『동의수세보원의원론』에 의하면 “『영추』와 『소문』이 황제를 가탁한 것을 보면 가히 괴상하고, 황당하지만 오강육부, 경락, 침법, 수양론 등을 드러낸 공이 있으니 다 믿지는 말되 참고는 하자.”라고 하였다. 『의사혹문』에 의하면 “고금의 의사에는 질의, 음양의, 선가이라는 세 부류가 있는데 편작, 중경과 같이 병독을 찾아 적절한 처방으로 병을 없애는 이가 질의, 병을 보지 않고 음양오행과 상생상극으로 억측하는 이가 음양의, 기와 연단을 복용하는 이는 선가의라 하였다. 이 중에서 질의만이 진정한 의사”라고 하였다.

11) 허준 저음. 동의문헌연구실 옮김, 진주표 주석. 신대역동의보감. 서울. 법민문화사. 2007. p.5.

12) 정계서. 한국 도교의 기원과 역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p.194.

13) 성호준. 『동의보감-내경편』의 도교사상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0. 13(1). 255-256.

14) 허준. 동의보감. 서울. 남산당. 1976. p.72. “參同契註曰 形氣未具 曰鴻濛 具而未離 曰混淪 易曰 易有太極 是生兩儀 易猶鴻濛也 太極猶混淪也 乾坤者 太極之變也 合之爲太極 分之爲乾坤 故合乾坤而言之 謂之混淪 分乾坤而言之 謂之天地 列子曰 太初 氣之始也 太始 形之始也 亦類此”

하였다. 이 문장은 抱一子 陳顯微가 주해한 『周易參同契解卷上』와 『列子·天瑞篇』의 내용이 인용된 것으로, 조문상으로는 11장의 ‘이에 공자는 홍몽을 예찬하였으니 건과 곤의 덕은 텅 비어 공허하다. 옛날을 되돌아 보면 마땅히 으뜸되는 제왕이니…(於是, 仲尼讚鴻濛, 乾坤德洞虛, 稽古當元皇…)’을 주해한 것이다.

2번째 인용문은 「身形」의 「背有三關」 조문에 “『참동계주』에 ‘인신의 기혈은 위아래로 왕래하고 순환하는데 밤낮으로 머무르지 않는 것이 강하의 물이 동쪽으로 흘러 바다에 이르러 마르지 않는 것과 같다. (또한) 누구도 명산과 대천의 공혈이 모두 서로 통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물은 땅속을 말미암아 행하니 대개 순환이 서로 왔다갔다 하고, 해와 달의 운행도 역시 그러하다.”¹⁵⁾라고 하여 등에 있는 尾閭關, 軛轡關, 玉枕關을 통과하는 기운의 흐름이 마치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강의 흐름과 같다 하였다.

「內景·卷一氣」 ‘氣爲呼吸之根’ 조문에서는 『참동계』 7장의 원문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참동계주』에 ‘두 가지의 쓰임은 효의 자리가 없어서, 두루 육효의 허한 곳을 흐른다.”¹⁶⁾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는 음양의 작용이 들숨과 날숨으로 표현되어 태식법과 같은 호흡법으로 연결됨을 말한다.

3. 『주역참동계』의 양생론적 활용

『참동계』에 내포되어 있는 역학이론과 爐火이론에서 나온 단법화후를 이용하여 양생과 치법에 대해 논해 볼 수 있다. 『참동계』에서는 주역의 6괘를 하루의 밤과 낮에 배치하여 30일의 화후를 설명하는 주야 60괘 화후설이 있는데 配상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양생법과 질병, 치법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張介賓의 『類經圖翼』을 따라 각 효에 대한 장부배속을 하면

양효는 腑에, 음효는 臟에 해당한다(표 1. 참조)¹⁷⁾.

예를 들어 초하루 아침 雷屯을 보자(표 2. 참조). 효상을 가운데 적고, 오른쪽에는 납갑납지설에 따라 간지를 적는다. 왼쪽에는 오른쪽의 간지와 상응하는 장기를 적고, 해당 장기의 허실을 판단한다. 단법화후로 보자면 다음과 같다. 단을 수련하는 자는 자시에 양기를 끌어들이어 방광에 들게 하고, 인시에 양기를 끌어들이어 담에 들게 하고, 진시에 양기를 끌어들이어 위에 들게 하고, 신시에 양기를 끌어들이어 대장에 들게 하고, 술시에 양기를 끌어들이어 위에 들게 하며, 자시에 다시 돌아와 방광에 들게 한다. 이는 시간에 맞게 해당 臟에 상응하는 腑로 양기를 끌어들이는 방식인 것이다.

표 1. 육효의 장부배속

臟(陰爻)		腑(陽爻)
肺	六爻	三焦
心	五爻	胃
脾	四爻	膽
肝	三爻	小腸
腎	二爻	大腸
命門	初爻	膀胱

표 2. 水雷屯(예시)

肺	--	子
心	-	戌
胃	--	申
脾	--	辰
肝	--	寅
腎	-	子

4. 『주역참동계』의 본초학적 가치

『참동계』의 외단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광석지제를 이용한 약제화가 시도되었다. 이 가운데에는 금이나 은을 만들려는 시도와 같이 귀금속으로의 변환을 꿈꾼 것도 있지만 단약을 통해 진인을 이루려는 시도가 주된 것처럼 대부분 의약학적 관점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약물학적 연구는 불노장생과 같은 예방의학적 관점과 살균, 살충, 消腫止痛, 收斂止血 등의 내복, 외용적 효능을 이용한 질병치유의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15) 허준. 동의보감. 서울. 남산당. 1976. p.74. “參同契註曰 人身氣血 往來循環於上下 晝夜不停 猶江河之水 東流至於海而不竭 殊不知名山大川孔穴皆相通也 水由地中行 蓋循環相往來也 日月之行 亦然”

16) 허준. 동의보감. 서울. 남산당. 1976. p.87. “參同契曰 二用無爻位 周流行六虛”

17) 장개빈. 유경도익. 서울. 대성문화사. 1982. p.243.

1) 예방의학적 약물 연구

도가적인 성격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 본초서적은 『신농본초경』이다. 약물을 나열한 순서나 약물의 개개 효능을 적은 부분에 있어서도 不老長生과 延年益壽에 치중한 흔적이 보인다. ‘不老’라는 효능을 기재한 본초로는 玉泉, 丹沙, 空青, 曾青, 白青, 扁青, 石膽, 礬石, 青芝, 赤芝, 黃芝, 白芝, 黑芝, 紫芝, 松脂, 柏實, 箇桂, 牡桂, 麥門冬, 女萎, 乾地黃, 遠志, 落石, 著實, 奄闔子, 漏蘆, 白蒿, 析蓂子, 蘭草, 青囊, 女貞實, 石蜜, 蜂子, 蒲陶, 蓬蘽, 胡麻, 麻蕒, 雌黃, 龍眼, 鹿茸 등 40개의 약물이다. 특히 몸을 가볍게 하고, 늙지 않도록 한다[輕身不老]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다. 『신농본초경』에 자주 등장하는 예방의학적 효능은 ‘不老’ 이외에도 ‘益氣’, ‘神仙不死’, ‘耐老’, ‘輕身延年’, ‘不飢不老’, ‘和顏色’, ‘堅筋骨’, ‘不忘’, ‘明耳目’, ‘利關節’ 등으로 표현되었다¹⁸⁾.

후대의 모든 본초학자들이 이러한 『신농본초경』의 도가적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상한론적인 관점에서 『신농본초경』을 해석한 청대의 의가인 鄒澍는 『本經疏證』에서 丹砂에 언급된 ‘輕身, 益壽, 不老, 神僊’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仲景과 같이 精神과 魂魄에 관한 문제는 氣血에 귀납시켜 치료하면 저절로 해결된다고 하였다¹⁹⁾. 중금속이 함유된 광석지제를 오래 복용하여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서술한 『신농본초경』의 비현실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면역력을 기르고, 노화를 막아 질병없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의학의 주요과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천연물은 중요한 소재가 된다. 게다가 단사와 같은 중금속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인체에 적합하게 법제하는 것에 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외단에 쓰인 광석지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2) 질병치유적 약물 연구

광석지제의 본초학적 이용에 대해서는 외단학설의 분석에서 실례를 들었는데 실제 다양한 처방에 응용되었다. 각각의 약물에는 인체에 유독한 독성을 완화시키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정교한 법제과정이 뒤따른 것 또한 사실이다. 硫黃을 이용한 金液丹이 대표적인 처방인데 대부분의 광석지제들이 독성이 강해 내복용도보다는 외용으로 흔하게 처방되었다. 외용으로 사용된 약물들의 주요 효능은 殺蟲解毒, 消腫定痛, 化腐生肌, 收斂止血, 排膿이었고, 각종 瘡瘍, 腫毒, 疥癬 및 눈, 귀, 코, 인후의 병증에 이용되었다. 응용방법 또한 膏貼, 塗抹, 熏蒸, 洗 등의 방법이 각각의 부위와 형식에 맞게 처방되었다²⁰⁾.

이러한 광석지제에 대한 현대의학적 연구가 암 치료에 있어서 접목된 것으로는 비소화합물이 대표적이다. 비소화합물은 한의학에서 砒黃, 砒石, 信砒, 信石, 砒霜이라 불리우며, 화학식은 As_2O_3 이다. 오래전부터 비소화합물에 대한 연구가 있어왔지만, 삼산화 비소(As_2O_3)를 법제한 육산화비소(As_4O_6)가 항암 효과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라는 2004년 연구가 있다²¹⁾. 작용기전으로는 세포주기억제, 혈관생성억제, 활성산소증가 등을 통해 세포사멸효과를 가져와 항암효과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²²⁾²³⁾. 실질적인 상용화부분은 임상실험의 결과에 따르겠지만 예부터 사용되어온 처방을 신약화하는 것에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광석지제를 이용한 처방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처방내용과 효능은 『동의보감』을 근거로 하였다.

- 20) 신민교. 원색임상본초학. 서울. 영림사. 1992. p.704.
- 21) Yong Wook Kim 외. Comparison of As_2O_3 and As_4O_6 in the Detection of SiHa Cervical Cancer Cell Growth Inhibition Pathway.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2003. 255-262.
- 22) Myung Jin Park 외. Tetraarsenic oxide, a novel orally administrable angiogenesis inhibitor.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논문집. 2003. 610-615.
- 23) In-chul Park 외. Tetraarsenic oxide induces apoptosis in U937 leukemic cells through a reactive oxygen species-dependent pathway.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논문집. 2003. 604-609.

18) 오보 원저. 신농본초경. 서울. 의성당. 2003. pp.27-234.

19) 추주 지음, 임진석 옮김. 본경소증.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7.

표 3. 외단 처방 분석

처방	약물/성분	약물	효능
玉壺丸	雄黃/As ₂ S ₃	白恪(말가루)三兩, 半夏生·南星生 各一兩, 天麻·白朮 各五錢, 雄黃水飛 三錢半	治痰厥頭痛, 眩暈
寸金錠子	雌黃/As ₂ S ₂ 砒黃/As ₂ O ₃	牡蠣粉·紅藤根·乾漆 各五錢, 藤黃·雄黃·雌黃·硫黃·輕粉·粉霜·麝香·砒霜·枯黃丹 各一錢	治痔疾痔漏
金液丹	硫黃/S	硫黃 十兩	治久寒痲冷, 及吐利日久, 身冷慄微
五福化毒丸	銀/Ag	玄參 一兩, 桔梗 八錢, 人參·赤茯苓·馬牙硝 各五錢, 青黛 二錢半, 甘草 一錢, 麝香 五分, 金箔銀箔 各八片	治熱疔多生瘡癩, 及痘瘡餘毒, 口齒出涎血, 臭氣, 或雀目夜不見物
百倍丸	銅/Cu	破故紙·炒牛膝·酒洗龜板·燻灸 各一兩, 肉蓯蓉·虎骨 各五錢, 木鱉子·乳香·沒藥·自然銅·火礬·醋柒九次 各二錢	治腎虛腰痛, 及折傷挫閃, 有百倍之功
抱膽丸	鉛/Pb	黑鉛 二兩半	治一切癩癧風狂, 或因驚怖所致
熏鼻方	錫/Sn	黑鉛·水銀 各一錢, 朱砂·乳香·沒藥 各五分, 血竭·雄黃·沈香 各三分	治楊梅, 天疱瘡, 熏鼻甚奇
淵然真人奪命丹	石膽/CuSO ₄	雄黃 三錢, 蟾蜍(乾則酒化)·乳香·沒藥·銅綠 各二錢, 血竭·膽礬·寒水石 各一錢, 輕粉·麝香·龍腦 各半錢, 蝸牛 二十一箇連殼用, 蜈蚣 一條酒灸	專治一切發背陰疽疔瘡惡瘡無名腫毒服之, 便起發有頭不痛者服之, 便痛已成者服之, 立愈, 此乃惡證藥中至寶也
還睛紫金丹	硼砂/NH ₄ Cl	白蜜二兩, 爐甘石 一兩 火礬十次柒水中浸半日, 黃丹水飛 六錢, 烏賊魚骨 一錢, 硼砂細研水飛入磁器中重湯煮令自乾, 麝香 各五分, 白丁香 二分半, 輕粉一分	治爛弦風
燒丹丸	硼砂/ Na ₂ B ₄ O ₇ ·10H ₂ O	太陰玄精石·輕粉 各一錢, 粉霜·鵬砂 各五分	治胎驚發癩
瑞竹堂化痰丸	礬石/ MAl(SO ₄) ₂ ·12H ₂ O	半夏·南星·生薑·白礬·燻角 各四兩 同入砂鍋內 水煮以南星無白點爲度 去燻角不用 入 青皮·陳皮·乾葛·蘇子·神麴·麥芽·山查·肉·羅漢子·香附子·杏仁 各一兩	治酒痰, 消食快脾順氣
木萸散	戎鹽/NaCl	木瓜·吳茱萸·食鹽 各五錢	治霍亂, 吐瀉, 肢體轉筋, 逆冷
三和湯	硝石/KNO ₃ , NaNO ₃ , Ca(NO ₃) ₂	生乾地黃·白芍藥·川芎·當歸·連翹·大黃·朴硝·薄荷·黃芩·梔子·甘草 各七分	治熱結血閉
雲母膏	雲母/X ₂ Y ₄ ~ 6Z ₆ O ₂ (OH,F) ₄	雲母·宵硝·甘草 各四兩, 槐枝·柳枝·陳皮·桑白皮·側柏葉·水銀 各二兩, 川椒·白芷·沒藥·赤芍藥·肉桂·當歸·鹽花·黃芪·血竭·菖蒲·白芨·川芎·木香·白欬·防風·厚朴·麝香·桔梗·柴胡·松脂·人參·黃芩·蒼朮·草龍膽·合歡·乳香·附子·茯苓·高良薑 各五錢, 黃丹 十四兩, 清油(참기름) 二斤半	凡癰疽瘡腫, 外貼內服, 神效
磁石養腎丸	磁/Fe ₃ O ₄	磁石 三兩 礬再用 膠白木通 各三兩 礬同水煮一伏時取石研水飛 二兩, 川芎·白朮·川椒·棗肉·防風·白茯苓·細辛·山藥·遠志·川烏·木香·當歸·鹿茸·兔絲子·黃芪 各一兩, 肉桂 六錢半, 熟地黃 二兩, 石菖蒲 一兩半	治諸般耳聾, 補虛開竅, 行鬱散風去濕
赤石脂禹餘糧湯	太乙禹餘糧 /Fe ₂ O ₃ ·2H ₂ O	赤石脂·禹餘糧 各二錢半	治少陰證, 下利不止, 當治下焦宜用
石萸散	紫石英/CaF ₂	紫石英·醋柒 一兩, 當歸尾·馬鞭草·紅花·炒烏梅肉 各五錢, 蓬朮·三稜·桂·醋炒·蘇木·節 各三錢, 沒藥·琥珀·甘草 各一錢	治石癩
太乙神精丹	曾青	丹砂·曾青·雌黃·雄黃·磁石 各四兩, 金牙 二兩半	治客忤, 癩亂尸疔, 惡氣, 顛狂, 鬼語, 蠱毒, 妖魅, 溫瘧, 一切惡毒, 無所不治

5. 내단이론의 장부론적 해석

1) 『參同攷』²⁴⁾의 장부론

『주역참동계』를 주석한 서적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서명응²⁵⁾의 『참동고』이다. 『참동고』를 이루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의학적인 관점이고, 마치 『동의수세보원』에서 주장하는 四臟이론과 유사한 논리전제가 주목을 끈다. 『동의수세보원』에서는 중앙의 태극으로서 心이라는 마음을 두고, 사방에 폐, 비, 간, 신의 4장기가 배열되는 것으로 해석한 반면 『참동고』에서는 건, 곤, 감, 리의 4정괘가 각각 금, 토, 수, 화의 오행속성을 가지는 것에 맞춰 폐, 비, 신, 심의 4장기를 배속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곤에 짝 지워진 폐장과 비장이 精氣를 운행시키고, 감리에 짝지워진 심장과 신장이 魂魄을 운행시킨다는 점이다²⁶⁾. 그것이 이후에 분류되는 鼎爐, 약물과 수련의 대상이 되는 精, 氣, 神, 丹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폐상과 수련이론

시정괘	오행	장기	정로와 약물	수련의 대상
건	金	폐장	솔뚜껑[鼎蓋]	氣
감	水	신장	술과 화로(鼎爐)	精氣神
리	火	심장	약물(藥物)	精氣神
곤	土	비장	술[鼎器], 뜻(意)	精神丹

24) 김윤수. 서명응의 『參同攷』와 『易參同契詳釋』. 한국도교와 도교사상. p.433.

『참동고』는 정조 10년(1786) 서명응이 편저한 한국 유일의 참동계학 총서로서 6卷 6攷의 형태를 띠고 있다. 앞의 3攷는 참동계의 본문을 주석한 것으로서, 김윤수는 이를 『易參同契詳釋』이라 별칭하였다. 뒤의 3攷는 참동계의 이치에 속하는 것을 널리 모으고 분류한 것으로, 「古文參同契」, 「周易參同契考異附錄」, 「易序章程」 3부로 구성되어 있다.

25) 서명응(1716~1787)은 18세기 영정조 시대의 사상과 문화를 선도한 학자로 상수학적 전통으로 서양의 천문학과 역법을 이해하고 대응하였던 유학자로, 그가 남겼거나 간행을 주도한 방대한 양의 문헌들은 易學史, 天文學史, 地理學史, 農學史, 音樂史, 道敎學史 등의 분야들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保晚齋叢書』(1783년)는 당시 조선에서는 일개 유학자로서 ‘叢書’라 칭할 만한 저서를 편찬한 최초의 경우라 할 수 있다.

26) 『참동고』 1장 1절에 “사람을 체질로 말하면 폐장, 비장은 건곤의 經이 되고, 심장, 신장은 감리의 緯가 된다. 운행으로 말하면 氣와 精은 건곤의 經이 되고, 혼과 백은 감리의 緯가 된다(人以體質言之則肺脾二臟爲乾坤之經, 心腎二臟爲坎離之緯, 以運行言之則氣精二物爲乾坤之經, 魂魄二物爲坎離之緯).”고 하였다.

『참동계』 16장의 “乾坤用施行, 天地然後治. 可得不慎乎”에 대한 『참동고』의 주석을 보면 “건곤의 쓰임이란 用九, 用六이다. 위 문장에서 이미 추측할 수 있는 법을 밝혀놓았다. ‘乾元用九, 天下治’라는 문장은 폐는 오장에서 하나의 작용도 없지만 단지 離火와 坎水에 의해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하늘 높이 자리 잡고 위로 스스로 움직여 조화를 부리지 않으면서, 리괘의 해나 감괘의 달이 승강왕래하여야 九六의 건곤이 그 변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건곤은 용구와 용육 없이는 변화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건곤의 일이다. 肺脾는 離火와 坎水가 없이는 운행할 수 없으니 그것이 폐비의 기운이다.”²⁷⁾라고 하였다. 폐와 비장이 건곤의 역할로 솔뚜껑과 술의 역할을 하며 그 안에서 감리의 수화가 작용한다는 것을 실제 폐의 생리기능 또한 심신의 승강작용에 의해 추동됨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이러한 건곤의 쓰임인 用九, 用六이 감리의 작용이라고 말한 부분이다.

또한, 『참동계』 17장의 “御政之首, 管括微密, 開舒布實” 구절에 대한 주석으로 “사람의 몸에서 폐장은 영위를 消導시켜 아래로 내려가게 하고, 腎精으로 갈무리하여 위로 상승시키니, 이것이 그 상이다.”²⁸⁾라고 한 부분을 보면 역시 폐장이 영위의 기를 운행 시킴으로써 신정의 순환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설명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18장에서도 “文昌統錄, 詰責台輔, 百官有司, 各典所部” 구절을 주석하면서 문창성이 肺金에 비유되고, 心腎이라는 약물을 운행하는 요체가 됨을 설명하였다. 19장에서는 “執法刺譏, 詰過貽主”에 대한 주석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간이며 화를 급격히 내서 역상하면 폐를 범하기 때문에 양생에 있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성내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양생과 수련에 있어서 폐의 중요성을 강조한 구절이라 할 수 있다. 24장의 “髣髴大淵, 乍沈乍浮”에 대한 주석에서는 大淵을 小昊金天氏의 음악이라 해석하면서 마찬가지로

27) “乾坤之用即用九用六是也。上文既備言推度之法矣。此又引乾元用九天下治之文以喻肺於五臟一無作用而但以離火坎水爲其作用者正如天高拱於上不自行造化之事而離日坎月升降往來爲九六於乾坤以成其變化故乾坤無用九用六即不能變化其乾坤之事。肺脾無離火坎水則不能運行其肺脾之氣也”

28) “御政之首君也。微密人心也。... 在人身則肺臟消導榮衛而降之於下管攝腎精而升之於上者, 此之象也”

영위를 운영하는 폐의 금기에 연결시켰다. 이어서 금원사대가중 한 사람인 李東垣의 『東垣十書』 가운데 있는 “元氣之來也，徐而和，細細如綿，邪氣之來也。緊而強，如巨川之水不可遏也。”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기가 긴장되고 강하게 오는데 반해 원기는 천천히 조화롭게 온다는 말과 연결시켰다. 폐금의 원기가 수련중 나타날 때 그러한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37장의 “以金爲隄防，水入乃優遊” 구절에서도 인체의 華蓋인 폐가 내단에 있어서도 솔뚜껑의 역할을 하여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는 제방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참동계』 20장의 “閉塞其兌，築固靈株。三光陸沈，溫養子珠。”를 주석한 부분에서는 ‘靈株’가 腎精이 순환하여 脾土의 자리인 黃庭에 자리잡은 大丹이라 보았다. 신장이라는 약물을 폐기가 이끌어 비토의 자리인 황정에 안착시켜 단을 키우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장부론적 관점으로 내단수련의 기전을 설명하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다. 또한 31장의 “黃土金之父，流珠水之母。水以土爲鬼，土鎮水不起。… 水盛火消滅，俱死歸厚土。三性既合會，本性共宗祖。” 구절에 대해서는 중앙의 토가 黃庭，黃巖이며，장부로서는 비장이라 하였다. 모든 것이 비장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앞서 말한 ‘靈株’，‘子珠’ 등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세 가지 본성을 금，화，수로 설정하여 장부로는 폐，심，신으로 보았다. 이는 다른 주석서들에서 수，화，토로 설정한 것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봤을 때 세 가지 본성이 어떠한 근원으로 회귀한다는 측면에서 그 근원은 토가 되는 것이 맞다. 대단이 황정에서 맺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참동계』 24장의 “金爲水母，母隱子胎，水爲金子，子藏母胞”를 주석하면서 오행상생의 원칙상 肺金이 腎水를 생하기 때문에 금이 수의 부모라 하였고，腎水가 위로 肺金을 자양하므로 어머니가 자식의 태를 숨긴다고 하였다. 진액생리에 있어서 金水의 기전과 내단의 기전을 연결시킨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같은 24장의 “真人至妙，若有若無”를 주석하면서 眞人이 곧 심장임을 말하였다. 인체의 세 가지 보물인 정기신을 단련하는데 있어서 비장의 토기인 精과 폐장의 금기인 氣가 하늘과 땅을 이루고，그 안에 삼재로서의 사람이 심장의 화기로 神이 되니 진인이라 칭한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폐장과 비장의 순행을 심장이 조절한다는 생리이론을 주장한 것이다.

같은 장 “退而分布，各守境隅”에 대한 주석에서는 심장이 세세한 기운인 원기를 폐를 통해 간，비，신장으로 내려 보내면 해당하는 장기의 기능을 이룬다는 것이다. 즉，심장이 이러한 통섭작용이 마치 하늘의 해와 같아 매우 중요함을 말하였다.

26장에서는 “旁有垣闕，狀似蓬壺。環匝關閉，四通踟躕。守禦密固，闕絕姦邪。曲閣相通，以戒不虞”의 구절을 주석하면서 간의 생리를 논하였다. 심장과 간，신과 혼이 상호작용하여 분노로 인해 간과 신이 함께 손상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빙 둘러 있는 것이 간의 형상을 본뜬 것이고，사방으로 통하는 것이 간이 눈을 주관하는 것과 관련있다고 하였다. 간은 또한 모려와 결단을 주관하므로 간사함을 막고，심장의 신실과 연결되어 능히 굳게 지킨다고 하였다. 또한 37장의 “其三遂不入，火二與之俱”를 통해서 간이 자주 언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三’은 간의 숫자이고，‘二’는 화의 숫자인데 肝木은 心火와 함께 다녀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26장의 “舉東以合西，魂魄自相拘” 구절에 대해서는 폐와 신，간과 심장이 서로 연결되어 서로의 생리 기능을 유지한다고 해석하였다. 중간에 비장의 뜻 [意]이 木火기전과 金水기전을 조절한다고 하여 비장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64장의 “縱廣一寸，以爲始初”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발생론적 장부론을 제시하였는데 오장이 처음 생하는 초기에 흰 것은 상승하여 폐가 되고，검은 것은 하강하여 신장이 되며，그 사이에 가로세로 1촌이 먼저 열리고 닫혀 심장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금，화，수의 작용이 우선이고，이어서 비장의 등장을 설명하게 된다.

81장에서는 “升熬於甌山兮，炎火張設下。白虎唱導前兮，蒼液和於後。朱雀翱翔戲兮，飛揚色五彩”라는 구절을 해석하면서 시루모양의 산인 ‘甌山’은 비장에，밑에서 타오르는 불인 ‘炎火’는 신장에，‘白虎’와 ‘蒼液’은 각각 폐와 간에 배속하여 폐가 먼저 작용하고，간이 나중에 작용한다고 해석하였으며，‘朱雀’은 심장에 배속하였다. 이후의 문장들로 이들 장기의 상호작용과 文武火候의 작용을 통한 대단의 형성을 논하였다.

2) 鍾呂內丹術의 장부론

내단수련의 과정을 장부론적으로 설명한 대표적인 것으로는 종리권, 여동빈의 『靈寶畢法』, 『鍾呂傳道集』이 있다. 『鍾呂傳道集』에서는 還丹을 논하면서 “금액은 곧 폐액이다. 폐액은 자궁의 태아가 되듯이 용호를 머금어 보살피고, 황정의 속으로 보낸다. 대약이 장차 이루어져 뽑아지면 肘後를 날아오르고, 폐액이 상궁으로 들어간다. 이내 아래로 돌아 중단전과 하단전으로 돌아오는데 이를 일러 금액환단이라고 한다.”²⁹⁾고 하였다. 여기서 肘後는 팔꿈치가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척추의 三關을 하나로 꿰고 있는 독맥을 가리킨다³⁰⁾. 즉, 독맥으로 운기되는 폐액이 하단전으로 돌아와 금액환단을 이룬다는 내용이며, 이렇게 하단전에 모인 금액을 金晶이라고도 하여 肘後飛金晶이라 합칭한다. 또한, “옥액은 腎液이다. 신액은 원기를 따라 올라가 심장을 조회하고, 쌓여 금수가 되는데 이것을 들어 올리면 옥지에 가득 찬다. ...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두루 돌아 다시 순환하면 옥액환단이라고 한다.”³¹⁾라고 하였다. 이처럼 폐와 신장의 생리를 통하여 단의 형성을 논하였는데 주후비금정을 통해 하단전으로 돌아온 것이 금액이고, 심장에 이른 腎液이 하단전으로 내려온 것이 옥액이라는 것이다. 폐장의 기능을 강조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 『黃庭經』의 장부론

『黃庭經』의 장부론적 관점은 책의 제목에 들어있는 ‘黃庭’에서 드러난다. 周楣聲의 『黃庭經醫疏』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했는데 황정은 비장 또는 중앙의 자리로 해석된다³²⁾. 황정에 대해서는

29) 이원국 지음, 김낙필외 3명 옮김. 내단 심신수련의 역사 1.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 p.593. “金液乃肺液也, 肺液爲胎胞, 含龍虎保送在黃庭之中, 大藥將成抽之, 肘後飛起, 其肺液以入上宮, 而下還中丹, 自中丹而還下田, 故曰金液還丹也.”

30) 이원국 지음, 김낙필외 3명 옮김. 내단 심신수련의 역사 1.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 p.606.

31) 이원국 지음, 김낙필외 3명 옮김. 내단 심신수련의 역사 1.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 p.593. “玉液乃腎液也, 腎液隨元氣以上升, 而朝於心, 積之而爲金水, 舉之而滿玉池. ... 不升不納, 周而復還, 故曰玉液還丹者也.”

32) 최창록. 황정경연구. 서울. 태학사. 2002. p.102.

중맥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중맥이란 인체의 중심을 관통하는 기맥으로 중맥 또한 삼단전과 같이 상황정, 중황정, 하황정으로 나뉜다. 『황정경』에서는 중맥이라는 관점을 차치하고라도 43장 「肺之章」의 “肺之爲氣 三焦起”라는 구절을 비롯해서 삼초와 삼단전의 기능상 유사성을 드러내었고, 여타 주석서에서는 삼단전과 폐, 비, 신의 장부론과의 연관성을 주장하였다³³⁾.

「黃庭章」, 「心神章」, 「肺部章」, 「心部章」, 「肝部章」, 「腎部章」, 「脾部章」, 「膽部章」, 「肝氣章」, 「肺之章」 등에서 각 장기에 살고 있는 신령의 옷과 색깔, 이름 등을 열거하여 다소 巫醫적 요소를 띤 내용이 있다. 각각의 장부를 存思 또는 存想하여 神을 편안케 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았을 때 『황정경』의 장부론적 내용은 한의학과 매우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III. 결 론

『동의보감』, 『신농본초경』, 『참동고』를 중심으로 『주역참동계』의 의학사상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황제내경』의 양생법 중에 중요한 원칙이 恬憺虛無인 점을 보면 한의학의 근본에 자리한 도가적인 관점이 『주역참동계』에도 흐르고 있다. 『주역참동계』가 가지는 의학적 가치는 『동의보감』이라는 걸출한 의서의 도가적 바탕에서 우선 드러나며, 내단수련의 인체생리이론과 외단의 의약학적인 면에서 더욱 확연해진다. 특히 ‘丹’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황화수은인 丹砂에서 유래되었다는 점, 『신농본초경』 등에 등재된 광물성 약재들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다수 이용되었다는 점 등이 『주역참동계』의 의학적 가치를 말해준다.
2. 내단적으로는 단전이론, 인체발생론, 老化이론, 양생이론 등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단전이론은

33) 이병서. 『황정내경』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98. p.39,282.

한의학의 三焦, 氣街이론과 유사하여 연구해 볼 가치가 풍부하다. 이외에도 천인상응의 원칙에 입각하여 天文과 결합된 양생사상, 윤리도덕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드러낸 바가 크다.

3. 『참동고』에는 건, 곤, 감, 리 4정괘가 각각 금, 토, 수, 화의 오행속성을 가지는 것에 맞춰 폐, 비, 신, 심 4장기에 배속되었다. 건곤에 짝 지워진 폐장과 비장은 精氣 운행을 담당하고, 감리에 짝지워진 심장과 신장은 魂魄 운행을 담당하며, 이들 장기는 鼎爐, 精氣神丹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현시점에서 연금술에 대한 연구는 노화를 방지하고 질병없이 건강하게 살아가자 하는 현대 사회의 정서와도 부합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법제를 통해 광석지체가 안정성이 담보된다면 암과 같은 난치성 질환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IV. 참고문헌

<논문>

1. 이도정. 『주역참동계』에 나타난 역학사상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3.
2. 성호준. 『동의보감 내경편』의 도교사상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0. 13(1). 255-256.
3. Yong Wook Kim 외. Comparison of As₂O₃ and As₄O₆ in the Detection of SiHa Cervical Cancer Cell Growth Inhibition Pathway.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2004. 36(4). 255-262.
4. MyungJin Park 외. Tetraarsenic oxide, a novel orally administrable angiogenesis inhibitor.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논문집. 2003. 610-615.
5. In-chul Park 외. Tetraarsenic oxide induces apoptosis in U937 leukemic cells through a reactive oxygen species-dependent pathway.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논문집. 2003. 604-609.
6. 김윤수. 서명응의 『參同攷』와 『易參同契詳釋』, 한국도교와 도교사상. p.433.

7. 이병서. 『황정내경경』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p.39,282.

<단행본>

1. 장개빈. 유경도익. 서울. 대성문화사. 1982. p.243.
2. 이천. 정교의학입문. 서울. 한성사. 1984.
3. 당종해 원저, 김달호·안규석 공역. 의역통설. 서울. 의성당. 2002. pp.1-3.
4.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p.44.
5. 오보 원저. 신농본초경. 서울. 의성당. 2003. p.27, pp.27-234.
6. 송점식 찬. 의학집요. 대전. 문경출판사. 1992. p.31.
7.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p.71-72.
8. 허준 지음, 동의문헌연구실 옮김, 진주표 주석. 신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5.
9. 정재서. 한국 도교의 기원과 역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p.194.
10. 허준. 동의보감. 서울. 남산당. 1976. p.72,74,87.
11. 추주 지음, 임진석 옮김. 본경소증.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7.
12. 신민교. 원색임상본초학. 서울. 영림사. 1992. p.704.
13. 이원국 지음, 김낙필 외 3명 옮김. 내단 심신수련의 역사 1.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 p.593,606.
14. 최창록. 황정경연구. 서울. 태학사. 2002. p.102.